'후후한 교사, 꿈틀거리는 아이들'

가정

하나님께 예뻐드립니다



충일교회 가정예배부

설교

안녕하세요, 친구들! 혹시 생일이나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받아본 적 있나요? 상자를 열기 전부터 마음이 두근두근 하고, "무엇이 들어 있을까?" 기대되지요. 오늘 성경에서도 하나 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놀라운 선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 셨어요. 그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아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너를 통해 아기가 태어날 거야. 그 아기의 이름은 예수라고 할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분이야."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기가 태어나나요?" 그러자 천사가 대답했어요. "성령님께서 너와 함께하실 거야. 그래서 태어나는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거야." 마리아는 두렵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주님의 종이에요. 주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해요." 친구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잘 이해되지 않아도, 무섭고 떨려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 어요. 그러니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네!" 라고 대답해야 해요. 말씀을 따르는 어린이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사용하신답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님 말씀에 네! 하고 순종할래요!"

충일교회 가정예배부

예배 순서

사 도 신 경		다	같	이
찬 송	하나님 저 왔어요	다	같	이
말 씀 봉 독	누가복음 1:26~38절	다	같	이
설 교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 예수님	설	ュ	자
말 씀 나 눔		다	같	이
합 심 기 도		다	같	이
축 복 기 도		부모기 자녀기	자녀· 부모	에게 에게
주 기 도 문		다	같	이

- ★ 찬송과 축복기도문과 말씀 나눔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
- ★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충일교회 가정예배부

찬 양



→ 찬양 동영상 바로가기

공동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해 주세요. 우리도 예수님을 기쁘게 따라가는 어린이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나눔

- 1.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누구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나요?
- 2.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대답했나요?

충일교회 가정예배부